내년부터 임신 ·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전북도, 저출생 극복 위해 '임신 · 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 수립

임신준비-임신-출산 3단계로 분류… 2026년까지 지원사업 늘려

전북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임신·출산 지원 사업과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2024~2026년까지 연차별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은 전북도의 출생율 저하와 늦은 결혼 등으로 고령산모,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 부담 개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을 수립해 5월부터 7월까지 사업발굴 및 검토를 추진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와 신혼부부 등 일반도민 10명으로 구성된 자문팀을 구성하여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타 시·도 벤치마킹, 도내 시·군사업 조사,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언론·동향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조사해 총 169건의 사업을 적극 발굴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요도가 높은 21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은 크게 각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3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1단계인 '임신 준비 단계'는 70억원 규모로 본인의 가임력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부 산전검사 지원,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이 있으며, 2단계인 '임신 단계' 109억원 규모로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생리적 증상 및 임신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입덧약 지원 △막달 가사지원 서비스 실시 △임산부 우대적금 △고령산모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 3단계인 '출산 단계'는 242억원 규모로 출산 가정 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다자녀 출산용품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및 산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이다.

2024년 중점 사업으로는 임신·출산 희망 가정에게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폐지) △회당 본인부담금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까지 도내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난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김관영 도지사가 관심있게 추진하는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발굴 시즌2와도 연계해 7일 보고회에서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와 연차별 로드맵에 대한 사업필요성과 의지를 확인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해 우선 필요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전북의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8일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완주 삼례시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1회용 비닐봉투와 '바이바이'

전북도, 완주 삼례시장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자"

전북도는 지난 8일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완주 삼례시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1회용품 없는 문화, 전통시장이 만들어갑니다.'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면서 평소 장바구니를 적극 사용해서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며, 청사 내 다회용 컵 도입,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장례식장 다회용품 보급,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등 '1회용품 없는 전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일상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구를 살리는 용기있는 실천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지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전경성의 자세"

본격 국회 일정 시작 대비 예산 복원 노력 필요성 강조 · 산단 킬러규제 혁파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주문 등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도정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차분하게 도전경성의 자세로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뤄내겠다는 도전경성의 자세"라며, "지금까지 축적해온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더 잘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성찰하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도전을 지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고, 장외에서 집단삭발 등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임위 및 예산국회 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정상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키자."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제반사항들이 출범일정에 맞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상황을 전체 실·국에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발표한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 관련해서도 "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현장이 답이 있으므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각 실국별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첨단기술력 갖춘 기업, 올 첨단투자지구 지정

두산 · 에이치알이앤아이 ·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등 3곳

첨단투자지구에 향후 5년간 총 2400억원 투자… 430여명 채용

전북도는 산업부 고시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에서 김제 지평선일반산단의 ㈜두산(디스플레이 분야), ㈜에이치알이앤아이(생산시스템 분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의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차전지 분야) 3개 기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산업부가 2021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두차례 공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후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음으로 전국에 총 9개 지구(전북 3, 충남 3, 부산 1, 울산 1, 경기 1)를 지정했다.

선정된 도내 기업은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사전에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을 거쳤으며, 3개 기업 모두 3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향후 5년간 총 2,400억원 투자와 430여명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부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첨단기술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개선 신청이 가능한 특례 등을 부여받게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추석 맞아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0개소, 전통시장 59개소 등 89개소이다. 이 중 도에서는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79개소는 각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 장수서 개최

장수군은 지난 8일 군민회관에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공감대 확산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송주섭 부군수와 장정복 의장, 박장옥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직능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전북도와 시·군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향후 일정 등에 장수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송주섭 부군수는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는 만큼 특례발굴,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정비 안내 등을 출범 전까지 완료하고, 공감대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해 군민홍보 활동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2023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 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웅변연합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국사장
• 전북인재개발원 및 기관 단체 등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서동숭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